



해외양계업은 지금...

- 편집부 -

일본

계란 수퍼에서 주로 구입

사단법인 일본양계협회가 양계경영개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중에 각종 행사에 참가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란구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계란구입 장소로는 수퍼가 60.9%, 생활협동 16.3%, 소매점 10.4%, 농장 6.4%, 백화점 2.0%, 기타 4.1%순이었다.

그 이유로는 수퍼는 편리하다가 제일 응답이 높았는데 55.6%였고, 다음은 가격 때문이라고 32.6%가 응답하였다. 생협과 농장에서 구입하는 것은 품질 때문이라고 응답률이 제일 높았는데 70.8%, 72.2% 순이었다.

진열방법에 따라 구입하는 경향은 높았는데 신선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가격에 따라 구입에도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으며 크기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치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계란을 구입하는데 소비자가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것은 제1위가 영양가가 높은 것, 제2위는 요리 용도가 넓은 것, 제3위는 가격이 저렴한 것 순이었다(鷄鳴新聞92.5).

EC

수출감소

EC국의 '90년 닭고기 수출은 5.2%의 감소를 보여 42만5천톤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는 근동이나 중동인데 이곳으로의 수출은 8.3%가 증가하였으며 동구권으로의 수출도 6.7%가 증가하여 85%로 보고 있는데 칠면조육의 수출은 2만5천톤으로 아프리카로 절반을 수출하고 있다.

'90년 EC 가금육수출현황

국가	닭고기(톤)	총 가금육(톤)
인접국, 중동	201,000	202,000
아프리카	51,000	80,000
미주지역	48,000	54,000
EC제외 유럽국	14,000	29,000
동유럽	11,000	14,000
기타	36,000	46,000
총량	361,000	425,000

캐나다

계란 농장에서 즉시처리

캐나다에서 계란판매를 전담하는 한 대행 회사에 의하면 '95년까지 생산자들은 대행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따라 계란을 낳는 즉시 등급분류 대신 무게로 판매를 할

해외양계업은 지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장에서 계란을 낳는 즉시 처리하면 등급을 분류하여 포장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 무게로 처리하여 액란을 제조하여 마요네즈나 삼푸까지 사용되는 업체에 납품할 예정에 있는데 현재 생산되어 유통되는 계란의 약 15%가 이같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처리비용은 현재 개당 33원인데 비해 일반적인 G.P란은 50원대에 이르고 있다.

폴란드

방역대책 철저

폴란드는 자체 육종사업을 통하여 육계, 산란계, 칠면조 품종 개발에 주력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91년 상반기에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 공급을 위해 25%의 P.S를 확보하였는데 이는 실용계 병아리 숫자가 대거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종란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산란계와 칠면조 부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정부가 경영하던 한 대규모 육종농장은

이로 인해 판매부진을 면치못해 많은 예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종계와 부화는 시기에 따라 하지 않아도 되는 수가 있는데 임의로 조절이 어려워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생산과잉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상품과 함께 유입되는 질병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현재 폴란드에서 유발되는 많은 질병이 수입종으로부터 따라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체 가축위생방역을 위해 수의사를 확보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Poultry International 91.12).

불가리아

채란산업에 신투자

불가리아는 가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피아 북쪽 10Km에 위치한 키스틴브로브에 채란농장을 건설하여 하이섹스 백색계를 사육하여 78주령까지 사육한 결과 난중이 61g 산란수 308개를 기록했으며, 갈색계로는 미국계인 Gilling 품종을 사육 63g 난중에 285개의 산란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하였다. 